

가톨릭教會와 社會福祉

韓 相 浩*

I. 序 言

일찍이 Reinhold Niebor가 그의 저서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Social Work,"에서 "교회는 사회복지를 낳고 길러준 어머니"라고 표명한 것처럼 오늘날의 사회사업이 그리스도교의 자선사상으로부터 출발한 여러가지 형태의 구빈사업을 통하여 발전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란 인간의 행복 *well-being* 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련의 사회적 활동으로서 흔히 상부상조, 자선사업, 박애사업, 사회사업, 사회운동이라는 여러가지 개념으로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의 사회복지의 개념은 종전의 단순한 자선 박애를 중심으로 한 구빈사업 이상의 어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도임을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즉 과거의 농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가족이나 이웃, 교회나 지역 공동체의 차원에서 그 해결이 어느정도 가능했으나,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산업화에 의해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그러한 원시적인 인간 복지 제도 *human institutions* 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좀더 광범위한 규모의 서비스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19세기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리스도교의 복지 활동이 정부나 사회적 차원으로 그 주도권을 이양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 水原 가톨릭大 教授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추세에 의해서 전체적 인간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국가의 제도적인 역할과 기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복지사업의 주역을 담당해 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종교단체의 복지활동은 절대적이며 여기에 따른 교회의 사회사목 *pastoral ministry*에 대한 좀더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60년대에 시작된 경제개발 정책과 더불어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은 자본주의와 자유경쟁의 물결속에 전통적인 사회구조나 가치관의 붕괴와 더불어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근대화 이후 국가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제반 사회문제와 욕구 충족을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교회나 민간단체에서 담당하는 선진 제국들과는 달리 재정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서는 교회의 적극적인 복지활동 참여가 절대적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사목에 대한 교회의 사명감 또한 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겠다.

오늘날 14개 교구에 200만 신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1984년에 선교 200주년을 맞이했고 이제 선교 300년대를 향하여 오늘의 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교회의 본래의 복음적 사명을 그르침없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창기때부터 박해라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증거하였으며,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복음정신에 따라 비참한 처지에서 신음하는 이웃들, 특히 천민, 빈곤한 사람, 과부, 고아등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신앙의 역사적 맥락속에서 성장해 온 한국 가톨릭 교회는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가난과 병고, 억압과 착취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함께 사회사목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움직임은 각 교구나 수도회안에서 확대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자선, 구빈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 기구들이나

시설들에서 뿐만 아니라 병폐적인 사회, 정치, 경제체제의 변혁이나 개선을 위하여 시도되는 여러가지 사회운동에서도 그 면모를 엿볼 수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사상을 성서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조명해 보고 또 지금까지 교회내에서, 특히 한국 교회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현 한국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II. 그리스도교의 慈善思想과 社會福祉

사회복지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기본적 가르침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창세기 1:26)은 누구나 동등하고 소중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어떤 처지나 조건속에서도 무시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참다운 인간 삶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예방해 주며 또한 모든 비 인간화의 사회적 모순과 그 환경의 개선에까지도 관심을 기울여 복된 사회, 즉 이 지상에 하느님의 왕국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신구약 성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의 자선사상과 사회철학을 간략하게 고찰하면서 수 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복지활동과 함께 사회사복에 대한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舊約聖書에 나타난 慈善思想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빈사상은 주로 모세의 율법서에 나타난 인간의 두가지 의무 즉 하느님께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과부나 고아들 같은 약한 이들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신께 대한 사랑의 의무로서 신성시 하였으며 그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마련하기도 했다.

구약성서에서 표현되는 하느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안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들의 보호자로서 정의와 의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특히 출애굽기(22:21~27, 23:10~11)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

을 강력하게 고발하고 법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고아, 과부, 이민자, 노예 등 민중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¹⁾

또한 신명기에서는 이러한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중들을 어떻게 구제해 주느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안식년 규정(신명기 15:1~11)과 십일조 규정(신명기 14:28~29)”을 마련하여 이들의 생존수단을 법제화함으로써 상부상조하는 사회생활을 제시하였다.²⁾ 그리고 레위기(19:9~10)에서는 하느님께서 주신 재화를 공동체에 있는 이들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우애공동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분배의 정의”에 대한 뚜렷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다.³⁾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회복지 사상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특히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다...억울하게 묶인 이를 풀러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네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 주며 제 골목을 모르는 체하지 않는 것이다”(이사야 58:6~7).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는 겉치레의 단식과 고행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인권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의 권익을 비호하는 일은 국왕의 임무이며(시편 72:2,4)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반적으로 부여되었다(출애 22:20~23)고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회복지사상은 “네 이웃을 네 자식처럼 사랑하라”(레위 19:18)는 기본 이념을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2. 新約聖書에 나타난 慈善思想

신약성서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테마는 “예덕 *charity*”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분

1) 헨드릭스 H., 「성서와 사회정의」, 정한교 역, 분도출판사, 1984, p. 25

2)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분도출판사, 1981, p. 16

3) *Ibid.*, pp. 115~116

리할 수 없는 가장 첫째 가는 계명으로서 당신 가르침의 중심사상으로 삼으셨다.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 친지들에게 국한하지 않고 원수들에게까지도 적용되는 인류 모두에 대한 폭넓은 사랑이다(루가 10: 25~37). 또한 이러한 사랑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임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누구나 복숨까지라도 바쳐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계명이라고(요한 15: 17)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보다 훨씬 더 낫다”(마르코 12: 33)고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권장하셨고 스스로 몸소 실천하셨다.

그리스도교의 자선 활동은 바로 이러한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이며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할 사명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 스스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묵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루가 4: 18)” 오셨고 또 그것이 메시아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이웃에게 사랑으로 헌신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 된다고(마태 25: 31~46)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특히 비참한 처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자기를 나누고 개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제적 사랑의 가르침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과 사도적 활동안에도 전승되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요약했고(갈라타 5: 14, 로마 13: 8), 종과 주인의 동등성을 재강조 하였으며(골로새 1: 16),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에베소 후 8: 12). 또한 야고버는 “하느님 앞에 몇몇하고 순수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들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야고버 1: 27)”라고 가르친다.

초대 교회에서 이러한 형제적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신자들의 공동체로서(사도행전 2: 43~47, 4: 32~37) 부자와 가난한자가 가진 모든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상부 상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초대 공

동체는 점점 교세가 확장되면서 사도들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수가 없게 되자 일꾼사람을 따로 뽑아 자선활동에 관한 일들을 맡겼는데(사도행전 6:3) 이러한 일꾼 부제 *deacon*의 선택은 사도들이 얼마나 자선사업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예시해 주고 있다.

특히 초대교회의 구빈활동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것은 자선행위가 속죄를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클레멘트는 “자선은 죄에 대한 보속으로서 좋은 길이다. 금식은 기도보다 낫지만, 자선은 기도나 금식보다도 더욱 좋다. 애덕은 많은 죄를 덮어준다”(2 Clem 16)고 가르치므로 애덕의 실천은 예배와 밀접히 연결되게 되었다. 매주일 또는 매달 신자들이 원할 때마다 자신들이 준비한 돈이나 물건을 교회에 바쳤고 주교는 제단에 바친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Eusebius Hist. eccl. 6.43.). 이러한 사상은 후대 교회의 자선 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이후 St. Augustine (354~430), St. Bernard (1090~1153), St. Francis (1182~1226), 그리고 St. Thomas Aquinas (1225~1274)와 같은 이들도 애덕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베풀어 주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존엄하다고 가르쳤으며 교회도 빈곤자체에 어떤 존엄 *dignity*을 부여했고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행위라고 여겼다.⁴⁾

중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교회는 자선에 관한 행정을 지방 주교나 본당 신부 또는 부제들에게 위임했으나 대표적인 교회의 자선활동 기관들로서는 구빈원과 수도원을 들 수가 있다. 구빈원 *hospital, almshouss*은 처음에는 순례자들의 접대 장소였으나 후에는 가난한이들 특히 병자, 노약자, 과부, 고아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수용시설로 사용되었다. 구제기관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은 수도원 *monasteries*이었다. 수도원들은 자체내의 수입금이나 모금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에게는 구별없이 시여를 베풀고 구빈원 유지에 힘써왔다.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의 기원이라고 전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의 이러한 구빈활동은 종교적 의미와는 달리 문전걸식하는 이들을 증가시켰으며 태만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여, 특히 800년경에 Charlemagne 왕(742~814)은 교회의 이러한 무차별한 자선행

4) Schweinitz Karl, *Road to Social Security*, A.S. Barnes & Co. 1975, p.17

동에 반대하면서 거지생활을 금지하고 신체적으로 노동력이 있는 이들에게 구호를 베푸는 시민들에게 벌금을 물리게까지 하였다.⁵⁾ 가톨릭 교회와 국가 간의 이러한 빈민 구제에 대한 갈등은 중세말기까지 계속되었다.

15세기 전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교구의 자선활동이나 수도원, 구빈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1536년에 영국의 헨리 8세가 구빈법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1601년의 Elizabeth 여왕이 새정한 구빈법 *The Poor Law*의 배경이 되었다.

근대에 카톨릭 교회의 자선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혁신은 17세기 불란서 Vincent de Paul(1576~1660)에 의해서였다. 그는 1617년에 자신의 본당신자들을 중심으로 자선협회 *confraternity of charity*를 조직하여 감옥의 죄수들과 그들의 가족들, 고아들, 사생아들, 병자와 굶주린 자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많은 자선단체들이 형성되어 퍼져나갔다.⁶⁾ 특히 그는 왕가와 귀족들을 설득하여 많은 자선시설들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Ladies of Charity"를 조직하여 왕가나 귀족부인들이 빈민들을 직접 방문하고 도움을 베풀게 하였다. 또한 "Daughters of Charity"라는 여성 수도단체를 설립하여 빈민구제에 앞장섰으며, 이의 영향으로 다른 자선활동을 위한 수도단체들이 속출되어 불란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파급되게 되었다. Vincent de Paul의 자선활동의 특징은 도움을 베푸는데 있어서 관료적이고 사무적인 체제와 방법대신 훈련된 Worker들을 직접 파견하여 개인적인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 주려는데 있었으니⁷⁾ 이는 오늘날 교회내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3. 現代 가톨릭敎會의 가르침과 社會福祉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이 축적이 되고 빈부의 차가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순수한 자선활동만으로는 사회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교회는 사회정의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사회적 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즉 가난은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야기

5) 김영분, 가톨릭과 사회복지 사업, 「사회복지」 복권 63호, 1979 겨울, p.28

6)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III, McGraw-Hill Book Co., New York, 1967, p.493

7) *Ibid.*, p.495

되는 불공정한 분배나 착취등에 의해 발생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념해 오던 자선활동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치료의 방법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찾아야 한다고 믿으면서 지난 100여년 동안 교황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바탕으로 한 사회회칙들을 발표하였다.

1891년 교황 레오 13세는 노동현장 *Rerum Novarum*을 공포하면서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정의 *justice*와 공정 *equity*에 기초한 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고, 국가의 의무는 공동선을 실현하고, 특히 이러한 약한 노동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⁸⁾

또한 교황 비오 11세도 1931년에 “제 40주년 *Quadragesimo Anno*”라는 회칙을 통하여 재화는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레오 13세의 전례를 재 강조하는데 결국 이 두 교황의 회칙들은 사회정의 *social justice*와 사회애 *social charity*가 조화있게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정의는 모든 경제활동의 기저를 이룰 수 있는 법적이고 사회적인 질서를 이룩해야 하며, 사회애는 바로 이러한 질서의 중심 사상이어야 하고, 공권력은 그 질서를 보장하는데 질력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⁹⁾

교황 요한 23세(1958~1963)는 “어머니와 교사 *Mater et Magistra*”와 “지상의 평화 *Pacem in Terris*”라는 두 회칙을 통하여 인간은 본성적으로 생존, 육체의 보존, 생활발전에 합당한 수단과 자력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병고로 건강을 잃는 경우, 노쇠하고 실직하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에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수단에 관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가르친다.”¹⁰⁾ 그러므로 국가경제는 정의에 입각한 재화의 효율적인 재 분배에 의해 개인 각자의 생활이 완전히 발전할 수 있게하여, 일반 복지와 사회성원의 전인적 발전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도 주장한다.¹¹⁾ 즉 가난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자선활동의 방법뿐만 아니라 상호 보조성의 원리, 정당한 임금 및 공정한 재분배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급선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8) Encyclical Letter of Pope Leo XIII, *The Worker's Charter(Rerum Novarum)*, Catholic Truth Society, London, 1960

9) Encyclical Letter of Pope Pius XI, *The Social Order(Quadragesimo Anno)*, Catholic Truth Society, London, 1960

10) 교황 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 제 5~8 항

11) 교황 요한 23세 회칙, 「어머니와 교사」 제 4 항

특히 교회의 새신을 위해서 요한 23세가 소집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Gaudium et Spes*”을 통하여 변화하는 현대세계에 대하여 교회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며, 현대인의 갈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난하고 고통중에 신음하는 이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의무를 재 천명하였다. 이 사목현장은 먼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지성과 자유를 지닌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가 자신의 능력과 타인의 필요를 따라 공동선에 기여하고 사적 또는 공적제도를 촉진 원조하며 생활조건 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¹²⁾

또한 교회는 인류가족과 그 역사를 날로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하며¹³⁾, “때와 장소의 환경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자선사업이나 이와 비슷하게 모든 사람, 특히 빈곤한 사람들에게 봉사할수 있는 사업을 교회 자체가 일으킬수 있고 또 반드시 일으켜야 한다”¹⁴⁾고 하면서 사회복지 사업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재 확인하였다.

요한 23세의 사상을 이어받은 교황 바오로 6세는 인간의 인격적 완성과 인류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의 공평한 분배와 범 세계적인 자선사업 활동을 구축하여 기아와 빈곤에 대한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창립자의 모범을 따르는 교회는 무수한 자선활동을 통해서 평화의 실현에 공헌해야 하고 국가 사업과 합동해서 자선사업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⁵⁾ 이는 교회가 모든이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에 왜 그리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할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전임 교황들의 뜻을 계승하여 인간의 존엄성, 정의사회 구현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가난한 자에 대한 전 인류의 관심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지난 100여년 동안 교회는 여러 교황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하는 현대세계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복음적 원리들을 제시하였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12)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김남수 역, C.C.K. 1965, 제 21, 30 항

13) *Ibid.*, 제 40 항

14) *Ibid.*, 제 42 항

15) 교황 요한 바오로 6세 연설, 「세계평화와 정의에 대한 교회의 공헌」, 제 28 항

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교회의 대 사회적 소명에 대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현대의 가톨릭 교회는 사회사목의 중요성을 재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실천해 오던 소극적인 시설위주나 치료위주의 자선활동들 뿐만 아니라 좀더 광범위하고 대 사회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사회변혁과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는 가톨릭의 사회복지사업 분야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변천하는 사회의 요구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적 사회사업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크리스찬 정신에 입각한 많은 전문 인력이 절실히 요청됨을 인식하고 있다.

Ⅲ. 韓國의 가톨릭 教會와 社會福祉

1784년 이땅에 뿌리를 내린 가톨릭 교회는 수차례에 걸친 극심한 박해와 탄압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여 전국민의 약 5%가 되는 200만이 넘는 신자를 갖게 되었고 세계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활발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교세의 확장과 더불어 한국 천주교회는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한 대 사회사목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구나 수도 단체들 또는 뜻있는 평신도들을 통하여 복지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교회의 복지활동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오늘날의 한국 가톨릭 사회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韓國 가톨릭 社會福祉事業의 歷史的 背景과 展開過程

교회 초창기 100여년간(1784~1884)은 박해로 물든 수난의 시대였다. 하나님 앞에 모든이가 구별없이 하느님의 자녀들이며 같은 신앙, 같은 사랑 그리고 같은 희망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이 복음적 진리가 그당시 양반 군주들 비롯한 지도계급에는 심한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은 수많은 이들이 박해중에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당시 신앙의 선각자들은

박해의 위기중에서도 愛主愛人의 사상과 함께 홍수, 기근, 질병 등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돌보는 구빈활동을 실천적 덕목으로 삼았다. 이러한 자선활동들은 신도들 내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신앙공동체의 범위를 넘어 불우한 비 신자들에게까지 미치었다.¹⁶⁾ 특히 박해시대의 교회에서는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 신도들 가정에 위탁양육하거나 죽을 위험에 처한 아이들에게 대세를 베푸는등 아동복지 사업내지는 아동 구령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859년 베르뇌 주교때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미 嬰孩會의 사업 기금으로 43명의 고아를 키웠으며 施藥所도 설치되었다고 한다.¹⁷⁾

1884년 신앙의 자유가 '복인되자' 교회는 곧 복지사업의 새로운 형태인 고아원과 양로원을 설립 운영하게 되었는데, 1880년부터 블랑 백주교는 고아들을 모아 몇몇 여자 교우들 집에 맡겨 기르다가 1885년에 서울 곤당골과 풍골에 있는 기와집을 사들여 각각 고아원과 양로원으로 삼고 교우들로 하여금 돌보게 하였으니 1887년까지 수용된 고아가 100여명, 남녀 노인들의 수는 4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¹⁸⁾ 이것이 바로 한국의 근대적 사회사업의 시작이 된 것이다.¹⁹⁾ 그리고 1909년에는 나환자 정착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했고 그밖에 의료복지와 구빈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²⁰⁾ 이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사회사업 활동은 초등교육기관의 설치를 통한 아동 복지 사업이었다.

일제시대에 교회는 고아원이나 초등교육시설을 통한 아동복지나 양로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개신교의 사업활동에 비하면 매우 저조했었고 특히 1940년대 전시체제 아래에서는 급속히 감소하여 갔다. 북미로부터 들어온 개신교가 독립운동과 함께 각급 교육기관과 병원을 설립하고 문화, 언론, 청소년운동과 사회사업 분야에서 활발히 움직일 때 카톨릭 교회는 성사를 위주로 한 소극적인 신앙 활동들로 현상유지를 해 온듯 하다.

16) 조광, 한국 가톨릭 사회사업의 전개과정, 「나눔」 55호, 서울 대교구 사회복지회, 1984

17) 「서울 대교구 총람」, p.162

18) *Ibid.*, p.162

19) 하상락, 「한국의 사회발전과 가톨릭교회의 역할」, 서강대학교 사회문제 연구소, 1976, p.2

62

20) 조광, *Op. cit.*, p.1

태방이후 敎회의 社會사목 活動은 저조한 狀態를 유지해 오다가 韓國전쟁을 전후로 하여 아동복지사업, 전쟁 미망인 복지사업, 전재민 구제사업, 구라사업 및 의료복지사업등이 외국원조에 힘입어 활발히 전개되었고, 반면에 이러한 대외 의존적인 자선활동의 영향으로 敎회의 자립적이고 효율적인 社會사목 活動 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2. 오늘의 가톨릭 社會사목의 現況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로서 어떤 처지나 조건속에서도 무시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성서적 가르침에 따라 인간의 참다운 삶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예방해 주며 또한 모든 비인간화의 사회적 모순과 그 환경의 개선에 까지도 관심을 기울여 복된 사회를 이루고 결국 궁극적 목적인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敎회의 사명이라고 전장에서 보았다. 이러한 敎회의 복음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대 敎회는 社會사목이라는 분야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社會사목이라는 용어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포한 “현대세계의 사목원장”을 기초로 한 敎회의 社會지향적 活動,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으며 소외당한 사람들을 향한 사목을 통칭한다.²¹⁾ 敎회의 핵심적인 사명인 복음화와 밀접히 관련된 社會사목은 불우한 이웃에 대한 자선과 구호활동, 社會사업적 접근 방법을 통한 제반 社會복지, 社會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社會문제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도되는 제반 社會운동들, 예컨대 농민, 노동자, 빈민운동등도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社會사목의 관점에서 현 한국 가톨릭 敎회의 活動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천주교회는 14개 교구로 나누어져 있고 각 교구 주교들로 구성된 주교회의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두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교구간의 협력이 요청되는 공동관심사를 협의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주교회의안에는 社會사목을 담당하는 社會주교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인성회와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있다.

인성회는 敎회의 대 社會적 사업을 활성화 시키며, 격려 조화시키고, 정

21) 최재선, 敎회 社會사목에 대하여, 「나눔」 57 호, 서울대 교구 社會복지회, 1985

책을 연구제시하는 등의 조정역할뿐만 아니라 인적 기술적 물질적 자원을 개발, 동원, 배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담당 주교의 산하에 전국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구성은 인성회 각 교구 위원회 대표, 사회사업 전국기구 대표, 위촉위원, 사무국장으로 되어있다. 각 14개 교구는 교구 형편에 맞게 인성회교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반 사회사업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1975년에 정식으로 발족한 이래 인성회는 제반 구호활동, 자선활동, 복지사업, 개발활동, 사회운동에 종사하고 있는 단체, 기관, 공동체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면서, 분야별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사회의식 개발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교육, 피정 및 모금운동(사순절)을 실시해 왔다. 또한 효율적인 사회사업 활동을 위하여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연수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제공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성회는 교회내의 인식부족과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부족으로 원래의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여 특히 각 교구에 설치되어 있는 인성회도 사회사업의 중추기구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14개 교구중 대부분의 교구들은 인성회 업무를 사무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인천, 전주, 광주, 원주교구는 자체내에 사회사업을 전담하는 독립부서를 두어 인성회 업무를 겸하면서 주로 사회 복지 서비스를 베푸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회주교 위원회 산하에 있는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는 사회 저변에 산재해 있는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고, 정의와 평화를 저해하는 모든 비복음적 요인들을 제거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민권운동이나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이와 비슷한 단체로서 한국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들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정의구현이나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계층의 민권신장을 위해서 활동해 온 대표적인 사회운동 단체들로서는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 농민회, 천주교도시빈민사업협의회, 가톨릭노동사업전국협의회등을 들 수 있겠다.

교회 초창기에 설립한 고아원과 양로원을 중심으로 한국 천주교회 사회사업은 시작되었고 그후 의료사업, 아동교육사업, 청소년 직업보도, 전제민

〈표 1〉 한국 가톨릭 복지활동

분야별	교구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전주	제주	합계
아동복지	15 (17)		1	2 (3)	3 (4)	14	6 (7)	6 (7)	(3)	2		1				50(59)
청소년복지	13 (14)		1		2	2	1			4	1					24(25)
노인복지	4	2	1	1	3	1	3	2	1	1	1			1	3	24
여성복지	4 (15)	1	(1)	(2)	(5)		1	(5)					(1)	(1)		6(32)
장애자복지	16	1		4	2	1	3	5	5				5	6		48
결핵환자복지	2 (4)	(1)			1	1	3 (4)		(1)	3						10(15)
나환자복지		1	1	2	4	1	10	5		7	8	8	5	1		53
무의탁·행위복지	6			1	2		1 (2)	3	1				2			16(17)
지역의토	7	3		6	2	3						2	1			24
종합복지	(2)				1	1	(1)		(1)							2(6)
합계	67 (85)	8 (9)	4 (5)	16 (19)	20 (26)	24	28 (32)	21 (27)	7 (12)	17	12	17 (18)	12 (13)	4		257(303)

비고: ()밖의 수자는 중복되는 분야를 1개로 집계한 수자, ()안의 수자는 중복분야를 중복하여 집계한 수자.

자료: 「한국 천주교 사회복지 활동 주소록」,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인성회 발간, 1986년 11월

구호사업등으로 활동이 확장되었으며, 현재에는 교구나 수도원 또는 평신도들에 의해 운영되는 복지사업단체가 표 1과 같이 '86년 현재 257개에 이르고 있다. 그 이후에 생겼거나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를 포함한다면 300여개가 넘을 것이다.

대부분의 복지단체나 시설들은 교구나 수도회에 의해서 주로 운영되고 있고 교구나 수도회로부터 위탁받았거나 또는 스스로 뜻을 가지고 설립 운영하는 평신도 단체들도 많이 있다. 1981년 통계에 의하면 표 2와 같이 천주교 복지단체중 53%가 수도회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성불도 장애자직업훈련원과 같이 성부가 수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표 1을 보면 아동복지에서부터 종합복지까지 다양한 분야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아동복지에 관한 단체가 제일 많으며(59) 그다음이나 환자 복지와 장애자 복지로 되어있다. 그리고 지역분포에 있어서는 주로 서울, 대구, 부산, 수원, 인천과 같은 도시교구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도 볼수

<표 2> 설립자별 복지시설수

설립자	교 구	수도회	성직자개인	평신도	기타	합 계
시설수	12	29	4	5	4	54
백분율	22.2	53.7	7.4	9.3	7.4	100.0

자료 : 이종분, 한국가톨릭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 6집, 강남사회사업대

<표 3> 시설별 자원출처

시설구분	자원출처 (%)	자재이익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교 구	구 조	수용자 부담	회원	국 원	내 조
영 · 육 아 원	15.3	47.6	4.4	0.3	20.3	12.1			
양 로 원	40.3	42.7	1.8		9.5	5.7			
불우·근로청소년직업보도	0.8	13.0		25.0	47.5	13.7			
장애자복지시설	7.0	43.6	7.5	23.3	6.5	12.1			
근로여성교양시설	18.0			40.0	28.0	14.0			
부 녀 복 지	45.0		2.5	2.5	50.0				
사 회 복 지	41.0		22.0		27.0	10.0			
합 계	24.0	21.0	5.0	13.0	27.0	10.0			

자료 : 이종분, 한국가톨릭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 6집, 강남사회사업대

있다.

표 3의 1981년도 통계에 의하면 복지활동 자원이 대부분 자체수입(24%)과 정부보조(21%), 그리고 외국원조(27%)로 충당되고 있었으나, 최근에 외국원조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 그리고 각 복지단체의 활발한 자금확보 활동과 교우들의 적극적인 호응도로 미루어 볼 때 요즈음은 많은 자원이 각 단체가 독자적으로 모집한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충당되리라고 본다. 반면에 무질서한 후원회 모집과 자금확보를 위한 각종 활동들의 난립으로 혼동을 빚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가톨릭 사회사업 기관들은 분야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구라 사업, 장애인복지사업, 결핵사업, 아동복지사업, 무의탁자복지사업 분야의 5개 협의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교환,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회지 발간, 공동 행사등을 함께 운영하기도 한다. 1985년에는 전국 사회복지 단체들의 협의기구로서 “한국 가톨릭 사회복지협의회”를 결성하여 현급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기할만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87년 11월부터 정식으로 사무국을 개설하여 본격적인 활

동을 시작한 예정이다.

3. 가톨릭 福祉專業의 問題點과 對策

지난 200여년 동안 한국 천주교회는 이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과 병고로 버림받고 소외당한 이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특히 전대에 와서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정의와 사랑에 입각한 의식개발이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는데 있다고 보며 영성적 사회적 책임을 위한 각종 운동에도 역점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천주교회가 가장 첫째가는 이웃사랑의 복음적 사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왔는지 생각해 볼 때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200만이라는 신자수에 비하면 현재 행하고있는 사회사업 활동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부진하며 비과학적인 느낌이 든다.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과 대책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교회안에 복음적 사명인 이웃사랑, 특히 가난과 병고등으로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가진것을 함께 실천적 행동이나 사업을 통해 나누어야 한다는 의식이 약하다. 최근에 활발한 선교활동이나 다양한 신앙생활 운동등을 통하여 교세가 확장되고 신자들의 신앙생활도 전보다 더욱 활기를 띄는듯 하나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성전건립이나 자체내의 부속 시설확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듯 하다. 또한 기복적이고 성사위주의 신앙생활에서 탈피하고 대사회적인 사명과 함께 참다운 신앙이 열매를 맺을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하겠다.

특히 교회의 사회사업에 가장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도자들이나 일선 사업자들의 열성적인 지원이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교회가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실천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어느정도를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노력을 드리지 않는듯 하다. 현재 교회에서는 본당예산의 10%를 사회사업분야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일년에 한두번하는 자선헌금이나 재해같은 긴급구호를 위해서 모금하는 것으로

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목자들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수회나 피정같은 교육프로그램이 일반신자들의 의식개발 교육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신학교나 수도회의 양성과정안에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교육이나 훈련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둘째로는 교회내의 사회사목 기구의 통합적인 조직화와 활성화를 들수 있겠다. 위에서 열거한대로 효율적인 사회사목을 위한 기구나 협의체들이 형성은 되어있으나 교회당국의 강력한 지원이나 뒷받침이 미진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합적으로 사회사목 활동분야의 계획수립이나 제반 활동들을 담당 할 기구나 체제의 결핍, 그리고 아직 정립되지 못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오는 혼동과 거기에 따르는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나 유실은 막대하다고 본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인성회나 전국복지 협의회 같은 기구를 활성화시키거나 재정비하여 통합적이고 획일적인 사회사목 계획 수립이나 조정, 그리고 인적, 물질적, 기술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동원, 배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교구에서도 지역의 요구와 실정에 적합한 제반 사회사업 활동을 실시하며 각본당의 사회사목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는 사회복지국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복지사업들이 공동체의 절실한 요구나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립되지 않고, 설립자의 일방적인 의도에 따라 무작정 세워지게 되어 복지기관들의 중복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보게되는데 이러한 현상도 전국자원의 통합기구나 교구 사회사목국의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각 분야별 협의제도 친목유지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피상적인 유대보다는 좀더 깊은 차원의 공동기금이나 인력활용등을 통한 공동운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타종파의 복지기관과도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유지함으로써 좀더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공동선의 증진을 도모해야 하겠다.

셋째로 교회는 이러한 사회복지 사업을 위하여 교회내에 축적되어 있는 막대한 인적, 물적, 기술적, 시설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가톨릭이 보유하고 있는 신앙적 유산과 일치된 조직력,

전적인 봉사를 위해서 투신한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들,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인력들과 열성적인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전국에 두루 퍼져있는 지역교회의 조직망과 다양한 시설등 그 어떤 민간 단체보다도 복지사업을 위해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회문제들을 국가나 전문기관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현재의 한국 실정에서 교회의 역할은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선진 제국에서 교회기관들이 담당하는 보조적 *Supportive*, 보충적 *Supplemental* 서비스 이상의 어떤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네째로 충동적이거나 주먹구구식의 사회복지 사업 형태를 지양하고 전문성이 보완된 균형있는 사회사업활동이 되어야 하겠다. 현대와 같은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신앙적 동기나 열성만 가지고는 사회문제 해결자로서 불충분하다. 오히려 지식이 없고 훈련을 받지 못한 비전문가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교회의 사회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실제적인 사업활동들에 있어 나타나는 비능률성은 전문지식의 결여나 전문가의 참여가 없는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교회는 이러한 전문인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연수회나 세미나 같은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전문인력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겠다. 그리고 교회내에 산재해 있는 사회사업가들의 협의체를 결성하여 전문성 보완의 담당케 함이 좋겠다.

전문성과 더불어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내에 아직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연구기관의 설립과 중요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에도 투자를 해야 하리라 본다.

IV. 맺는 말

성서적 교훈과 교회의 가르침들을 통하여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리스도교의 중심 사상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이웃들에 대한 사랑, 특히 사회에서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며 또 그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안에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교회의 임무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참다운 삶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

하고 예방해 주며, 형제적 사랑안에 온 우주가족이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불우한 이들에 대한 자선활동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변혁이나 환경개선, 의식개발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담당해야 할 임무는 막중하다고 본다. 아직도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한 국가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인적, 물적, 시설적, 조직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는 보조적, 보충적 서비스 기관이상의 어떤 역할까지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불우한 계층과 함께 삶을 나누고, 대변자로서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교육자로서 그들의 의식을 깨우치며, 중매자로서 그들의 바람들이 전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자체내의 교세확장이나 복지활동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전체의 균형있는 복지증진을 위해 눈을 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나 타종파를 비롯한 민간 복지단체들, 그리고 여러 국제기관들과도 끊임없는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끝으로 가톨릭 사회복지사업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사회사업활동은 그분의 복음에 기초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사회의 부조리와 악을 고발하시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들의 편에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복음을 다하여 봉사한 철저한 “주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현세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내적자세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성 spirituality에 기초를 들 때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며, 마테 데레사의 말을 마지막으로 인용해 보고자 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입니다. 거의 20년간 가난한 사람들과 접촉해 오면서 저는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병폐스러운, 가장 커다란 재앙이란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임을 더욱 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나환자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결핵을 위한 약도 있고 그 병의 치료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을 당한 이들에게는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봉사하는 사람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 무서운 질병은 결코 고쳐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²²⁾

22) Malcolm Muggeridge, *Something is Beautiful for God*, 함세웅 덕, 설마오로 출판사, 1977